

비슬산 대견사

3·1절 '천년고찰' 되세웠다... 민족혼도...

일제 강제 폐사 97년 만에 힘모아 중창
진신사리 '대견보궁'은 민족氣 회복 의미

3·1절 95주년을 맞은 3월 1일 대구 달성군 비슬산 정상 부근에서는 일제에 의해 1917년 풍수지리상 일본의 국운을 짓누른다는 이유로 폐사됐던 대견사 중창을 마무리하는 개산(開山) 대제가 열렸다.

대견사 중창 개산대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김범일 대구시장, 김문오 달성군수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된 이후 97년 만의 복원. '천년고찰' 비슬산 대견사가 다시 문을 여는 순간은 한민족의 한을 불교계의 힘으로 어루만지는 순간이었다. 비슬산 정상에 자리한 대견사는 일본의 대마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대마도를 한반도로 끌어당기고 일본의 기를 누른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사찰의 주불전에 '대견보궁(大見寶宮)'이란 현판이 걸며 대견사는 그 위용을 드러냈다. 비슬산 정상에서 대견사는 저 멀리 일본을 내려다보며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었다.

마치 우리 민족과 이 땅의 질곡을 씻어 내리듯 이날 개산대제에서는 추운 동토를 녹이는 봄비가 촉촉이 내렸다. 2011년 3월 1일 기공식과 9월 상량식에 이어 이번 중창 개산대제까지 세 차례 모두 비가 내렸다. 여기에 운무가 산자락을 휘감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감돌았다.

법회 시작을 알리는 법고 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견사 앞마당을 가득 메운 불자들은 반야심경을 낭독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묵탁 소리에 맞춰 불자들은 대견사 중창을 기점으로 국운이 융성하기를 서원했다.

이번 중창은 달성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동화사가 50억원을 지원해 중창됐다. 동화사는 앞으로 20억 원을 더 들여 일주문과 종각도 건립할 계획이다.

동화사는 여기에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보궁을 조성해 그 무게를 더했다. 대구 동화사 측은 달성군, 대구시와 함께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달성의 역사성을 되찾고자 2011년부터 중창을 준비하며 진신사리 봉안을 추진했다.

올해 6월 티사 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 대사와 딜란 페레라 스리랑카 노동복지부 장관이 동화사를 방문했을 때, 성문 스님은 직접 이들을 대견사 중창 불사 현장으로 안내해 적멸보궁 조성 장소를 소개하는 등 정성을 보였다.

이후 성문 스님 일행은 지난달 22일 스리랑카 페레라 장관의 공식 초청으로 쿠루쿠데 사찰을 방문해, 공개행사를 통해 스리랑카 지역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신사리를 대견사에 모시는 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1917년 일본 '기' 누른다 폐사
대구 동화사 총 50억원 들여 불사
일주문 종각도 건립할 계획
"국운 융성·통일 염원 도량으로"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의 정신적 안정과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꺼이 진신사리의 한국 이운을 승인했다.

같은 노력 끝에 2013년 11월 스리랑카 쿠루쿠데 사원에 모셔진 스리랑카의 진신사리 4과 중 1과가 스리랑카 스님들의 손에 의해 대견사에 봉안됐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대견사 중창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뜻 깊은 일"이라며 "군 개성 100주년과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대견사가 새롭게 태어나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는 대견사를 국운융성과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기도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손문철 대구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등 관계자들이 대견보궁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대견보궁에는 스리랑카 쿠루쿠데 사원의 진신사리 1과가 모셔졌다.



이날 1000여 대중이 모여 국운융성을 발원했다.



개산대제에 참여한 불자들이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있다.



2013년 대견사를 찾아 진신사리를 봉안한 스리랑카 스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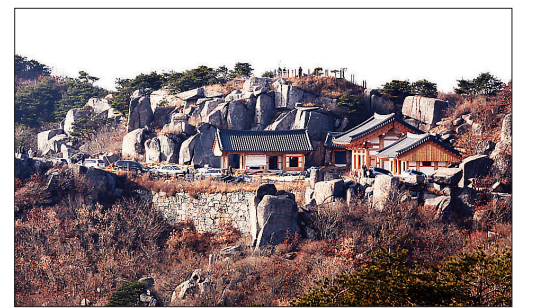
비슬산 대견사는...

일연 스님 주석... 대한제국 축원 도량

예로부터 '북봉정 남대전'이란 말이 전해지는 오래된 수행처인 비슬산 대견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기록에 그 연원이 전해진다. 대견사는 신라 헌덕왕 때인 810년 창건됐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된 뒤 조선 광해군과 인조 대에 중창됐으며, 1900년 영친왕 즉위와 대한제국 축원을 위해 중수된 뒤 동화사 말사로 편제됐다.

구전에 의하면 당나라 문종(文宗)이 절을 지을 곳을 찾고 다녔는데, 하루는 낮을 씻으려고 떠돌은 대야의 물에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났다. 이곳이 절을 지을 곳이라 생각한 문종은 사신을 파견하여 찾게 하였다. 결국,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게 되자 신라로 사람을 보내어 찾아낸 곳이 이 절터이다. 이 터가 대국(唐)에서 보였던 절터라 하여 절을 창건한 뒤 대견사(大見寺)라 하였다. 전설이 전한다.

고려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22세이던 1227년 (고려 고종 4년) 승과 선불장에 장원 급제한 뒤 초대 주지로 부임해 22년 동안 지냈으며 이곳에서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한 것으로 유명하다. 팔만대장경 분사대장도감으로 남해 정림사로 가기 전 22년을 주석하며 삼국유사 자료수집 및 집필을 구상한 사찰이다.



비슬산 대견사 전경

태종 16(1416) 2월 29일과 세종 5년(1423) 11월 29일 이 절에 있던 장륙관음석상(丈六觀音石像)이 땅을 흘러 조정에 까지 보고 되었고, 종파는 교종(敎宗)에 속하였다. 그 뒤 1900년 영친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재인(李在仁)이 중창하였으나 일본의 기를 꺾고 대마도를 끌어당긴다는 속설에 의거 한일합방 이후 강제 폐사됐다.

현재 대견사에는 복원된 3층석탑과,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동굴대좌(洞窟臺座)와 그리고 동굴대좌 입구 절벽에 유가종심인상(瑜伽宗心印像)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절터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터가 있으며, 가을 때는 달성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대견사에서 대마도 방향으로 자리한 석탑. 대마도를 견인하는 형국으로 일본의 기를 누른다고 하여 일제시대 강제 폐사됐다.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담사 자모암
낙성식 및 삼존불·신중탱화 점안 대법회

일 시 : 3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장 소 : 구담자모암 큰법당
증명법사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회주 밀운 큰스님

구담자모암은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로 이전하여 6년 끝에 불사를 마치고 낙성식 및 삼존불 신중탱화를 모시어 점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불사에 동참하신 신도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진하여 태아영가 천도도량을 가꾸고 낙태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구담자모암 법회안내 :
· 태아영가 천도제 : 5월 4일 (일요일) 입재
· 산신기도는 : 산신각등 1인 등 접수만 해당 됨 (4월 20일 입재 4월 27일 회향)



●출발 버스운행 : 조계사 정문 앞 8시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8시 30분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담사 자모암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199번길 18 / 전화 031)529-2855~6